

# 겨울철 세시풍속과 불



〈사진 1〉 화롯불

취사, 추위 극복과 더불어 주요한 불의 용도가 광명(光明)의 불이다. 불은 어둠을 밝힘으로써 암흑의 공포를 줄이고 맹수와 침략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반면 야간까지 인간의 활동을 연장시키기도 했다. 사용자 혹은 보는 이에 따라 불의 관점과 입장이 이렇듯 상반되는 듯하다.

습관적으로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불을 더 많이 이용한다. 여름철에는 실내용 등잔을 제외하면 불 이용이 적다. 취사용 불도 날이 더운 여름에는 부엌 아궁이 이용을 최소로 줄이고 야외에 부뚜막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 온돌바닥이 뜨거우면 밤에 잠을 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서상 겨울철 불의 이용은 취사용 아궁이 불, 사랑방 등의 군불, 지글지글 빨간 숯을 방으로 옮겨 놓은 화롯불(사진 1 참조) 등이 떠오른다. 이들 물건을 보면, 아궁이 불, 화롯불 속에 군밤과 군고구마를 구워먹으며 나누던 어머니-자식, 할아버지(할머니)-손자의 이야기꽃이 느껴진다.

실내용 불의 형태는 현재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가 대부분이지만, 과거에는 모닥불, 햇불, 등(燈) 등 다양했다. 조선시대 등 전통사회에서 등은 밀랍 등을 녹여 만든 초 속에 심지를 넣은 촛불, 질그릇나 사기 등 잔 속에 관솔이나 동·식물성 기름을 넣고 여기에 심지를 꽂아 불을 밝히는 등잔의 형태가 보편적이었다. 이동성·지속성 측면에서 준영구적인 형태가 등이 아닌가 싶다. 실용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등은 고대로부터 한국과 중국의 여러 문화작품에 등장하는 단골소재가 되기도 한다.

실내외 특히 야외에서 바람 등 외부영향으로부터 불을 보호하는 이동용 등(燈)의 여러 유형 중, 조상들의 첨단 발명품의 하나가 조족등(照足燈)이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발밑을 비추어 길을 밝히게 만든 조족등은 두꺼운 종이에 기름을 먹여 비나 습기로부터 불을 보호한다. 종이 안쪽의 원형 철 골격은 외형을 지탱하게 하고, 여기에 걸구된 초꽃이가 부착된 원형 구조물은 중력의 작용으로 초꽃이가 항상 아래에 위치하고 촛불이 수평을 이루도록 고안된 장치이다.((사진 2) 참조)



〈사진 2〉 조족등 겉과 내부

우리 조상들이 이용하고 보아온 겨울철 불의 모습은, 취사와 광명의 직접적인 불과 함께 세시풍속, 의례 등 상징적인 불 등 다양하다.

중국 청나라에서는 10월에 거등(車燈)·양등(羊燈)·사자등(獅子燈)·수구등(繡球燈) 같은 것들과 더불어, 주마등(走馬燈)을 쉽게 주위에서 볼 수 있으며 가격도 그리 높지 않아 구경도 하고 사가기도 한다고 묘사한다. 주마등은 종이를 오려서 수레바퀴를 만들고 촛불을 붙여 열기가 나오면 수레와 말이 달리며 그치지 않고 돌다가 촛불이 꺼지면 갑자기 멈추게 되는데, 운선(輪船)이나 기차의 이치와 같이 불로 수레바퀴를 돌리고 그 수레바퀴로 기계를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있다(『연경세시기』).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중국의 1천년 24국 역사를 거울삼게 하는 의미있는 행위로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주마등 실물을 보기는 어렵지만 그 의미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 세시풍속으로 비중있는 날이 설달 그림인데, 우리나라의 『동국세시기』, 『열양세시기』, 『한양세시기』 등 여러 세시기(歲時記)에 묘사된 이날 밤(除夕) 풍습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인가(人家)에서는 설달 그림날 밤에 집집마다 사당·마굿간·다락·마루·방·부엌·변소 등 곳곳에 모두 기름등잔을 켜놓는다. 등잔은 흰 사기접시에 실을 여러 겹 꼬아 심지를 만든 것이다. 이것을 외양간과 변소에까지 대낮같이 환하게 켜 놓고 닭이 울 때까지 밤새도록 자지 않는데, 이를 수세(守歲)라고 한다. 전해 내려오는 속담에 설달 그림에 잠을 자면 두 눈썹이 모두 쏜다고 하여 어린아이들은 대개 이 말에 속아 잠을 자지 않는다. 혹 자는 아이가 있으면 다른 아이가 분가루를 자는 아이 눈썹에 발라놓고 다음날 거울을 보게 하여 놀려주고 웃는다.

옛 풍속에 매년 설날 그믐날 밤이면 집집마다 등불을 내걸어 새해의 복을 맞이한다. 길 가득히 사기등잔을 팔기도 하고 길가를 돌아다니며 팔기도 하니 이를 '제석등잔'이라고 하며 이를 '등잔팔기(賣燈盞)'라고 한다. 『농가십이월속시』 12월조에 이를 잘 표현하고 있다.

백자 등잔에 새발같이 가는 심지	白瓷燈盞鳥足柱
집집마다 불 밝힘은 그믐밤 풍속이네	除夕焚膏家家俗
구들과 봉당 부엌 우리와 곳집	土炕蓬堂竈圈庫
창고 뒷간 여러 문 곳곳마다 밝혀 두네	廠園諸門隨處明

다음은 정월 첫날, 설날 아침(元旦)의 기쁨을 읊은 시이다(『비년사(肥年詞)』). 그믐날밤의 연장이기도 하며 새로운 해의 첫날로서 소원이 소박하게 담겨있다. 여기서 명등(命燈)은 대문 밖이나 처마 끝에 달아 두고 밤에 켜는 장명등인데, 그 밝기에 따라 한해의 운수를 점했다는 등을 말하며, 무릉여인(茂陵女人)은 첩을 의미한다.

남쪽 방과 북쪽 방 그리고 동쪽 방	南房北房復東房
사람 수 따라 명등을 밝혀 놓았네	多少隨人命燈張
등불이 밝은지 어두운지를 보고서	看取燈明復燈暗
재앙이 들지 재수가 들지 징험하네	驗得多災與多祥

나의 소원은 부모님 장수함ियो	願我高堂壽千秋
나의 소원은 좋은 매형 맞이함이네	願我姊妹迎賢婿
나의 소원은 낭군이 부귀해지는 것이지만	願我郎君大富貴
부귀해도 무릉 여인 들이지는 마오	富貴休娶茂陵女

우리나라에서 설 다음으로 의미 있는 세시는 정월 대보름(上元)이다. 이날 밤을 원석·원소(元夕, 元宵)라 한다. 대보름은 농경을 기본으로 했던 과거에 1년 농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중요시했던 민족 고유의 명절로, 중원(中元)인 7월 15일과 하원(下元)인 10월 15일을 합하여 '삼원(三元)'이라 부른다. 대보름날에는 새벽에 귀밝이술을 마시고 부럼을 깨물며, 약밥(藥飯)과 오곡밥 따위를 먹고, 제웅치기와 같은 액막이 풍습과 널뛰기, 윷놀이 등의 다양한 놀이를 행하였다. 가까운 야산에 달집을 만들어 달이 떠오르면 달집에 불을 붙여 달에 소원을 비는 달집태우기 만한 놀이가 없다. <<사진 3> 참조



〈사진 3〉 달집 세우기(좌)와 달집 태우기(우)

대보름 세시행사는 한 해 세시풍속 중 1/4이 넘는 정도로 많으며, 설 풍속을 합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이것은 정초와 대보름 명절이 우리 민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동시에 이들은 상호 유기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정월 대보름날의 모습은 여러 시에 잘 묘사되어 있다.

온 집안 창문마다 달빛이 황홀한데  
무슨 일로 대청에 불을 밝혀 놓았나  
계집종은 국과 반찬거리 넉넉하기 빌면서  
조왕님께 잘 보이려 맑은 기름 태우네  
(이상, 『세시풍요』)

渾舍窓櫺晃月光  
張燈何事又廳堂  
丫鬟暗祝羹餐足  
焚得清油媚竈王

한양의 팔만 호 부엌에  
칸칸마다 등불을 밝히네  
기쁜 징조를 이 밤에 증험하는데  
가장 밝은 곳은 누구의 집인가  
(이상, 『세시잡영』)

漢陽八萬廚  
間間燈燈白  
喜花驗此宵  
繁燼知誰宅

네 번째 수(其四)  
북소리 요란스런 곳곳의 푸닥거리  
농가의 즐거움은 풍년에 달려 있네  
계집종도 풍년 들기 기원할 줄 알아서  
한밤중 조왕 등잔불에 기름을 더하네  
(이상, 『원조희작, 원석』)

處處賽神巫鼓騰  
田家樂事係年登  
又頭亦解祈豐歲  
夜起添油祭竈燈



〈사진 4〉 조왕을 모시는 모습

대보름날의 의미는 농사신으로서, 토지신(土地神) 즉, 지모신(地母神)이 ‘여성’과 관련되는 상징적 의미와 닿아있다. 대보름날과 밤이 이어지는 14일 밤에, 부역을 맡아보면서 부역의 모든 길흉을 관장 조왕(竈王) 즉, ‘조신(竈神)’에게 제사를 지낸다. 조왕신은 ‘조왕각시’라고 부르는 여성신으로서 재산을 관장하는 신이며 육아를 점지하는 신으로, 호남지방에서는 조왕신의 신체(神體)를 주로 뚝배기에 물(井華水)을 담아 솔 뒤쪽에 모신다.〈(사진 4) 참조〉

특이한 점은 조왕신 제사를 중국에서는 12월 23일에 지내고 있다는 점이다. ‘사조(祀竈)’를 행하는데, 선달 23일 새벽녘에 집집마다 조왕신에게 제사지내는데 집안에 장대를 세우고 천등(天燈)을 매달아 건다. 제수물품은 국·탕·조반(竈飯)·당과(糖瓜)·꿀떡 등이며 신마(神馬)에게는 향기로운 술지계미와 볶은 콩을 주발에 담아 먹인다. 남자는 열을 지어 절을 하면서 약을 막고 선을 드러내는 말로 축원한다. 내실에서 부녀자들은 화로와 부뚜막을 청소하고 깨끗한 진흙으로 덧칠을 하니 이것을 ‘괘포(掛袍)’라 하며

등을 켜고 조용히 절한다(『제경세시기승』)고 적고 있다. 또 중국에서는 상원절(上元節)을 전후로 5일 밤 동안 계속하여 등불을 밝히는 방등(放燈)을 하는데, 당나라 현종(玄宗) 때에 정월대보름날 경사(京師)에서 매우 성대하게 행사를 치렀다고 중국 세시기에 소개되어 있다.

조선전기 문집인 『택당선생별집』(이식)에는 상원(上元)에 중국에서는 관등(觀燈) 놀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조선후기의 『남계집』(박세채)에서는 “중국 사람은 정월 대보름날 등불을 성대하게 구경하는데, 우리나라에 전해진 풍속은 오래가질 못했네. 수많은 마을 노인들 길거리에 가득 모여, 새로 뜬 달 바라보며 한 해 농사점을 치네”라고 하여 중국과 풍습이 다름을 시로써 읊고 있다.

이렇듯 중국과 우리의 세시가 다르다. 우리는 중국 세시의 의미는 살리되, 화약 등을 통한 불꽃놀이, 관등·방등 등의 화려한 세시풍속상의 여러 행사 등은 수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한다. 위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우리 조상들은 다른 이유와 시대적 수용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